

5. 비(碑)는 말한다³¹⁾

들짐승들은 자기 영역을 표시하는 습성을 지니고 있다. 분노나 냄새, 발톱자국 등을 남겨 다른 동물들의 침범을 경계한다. 영역을 알리는 일종의 경고 행위라고 할 수 있다.

표시방법이 다를 뿐 원시인이나 고대인들 가운데도 그 같은 행위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지금도 수렵생활을 하는 일부 부족들 가운데는 그 같은 행위가 남아 있다. 그들은 나무나 돌 해골 같은 것을 이용, 위협적인 장치를 해 놓은 것을 볼 수 있다.

31) 『한라일보』(삼각봉), 1996. 02. 09 (금), 논설고문.

시황비(始皇碑)는 지금도 ...

고대인이 남긴 것 가운데는 지금도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은 바위 등에 새긴 각석(刻石)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수렵에 큰 성과를 거두거나 새로운 지역을 점거하면 그곳에 그림이나 글을 새겨 승리를 기념했다. 지금 발견되고 있는 각석유적들 가운데도 그런 뜻이 담긴 것들이 있다.

빗돌도 추적해 보면 그런 필요에서부터 발상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빗돌도 처음에는 글은 고사하고 그림도 없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글자가 생겨나면서 글로 표현하기 시작했다고 할 것이다. 글을 새긴 제격의 비(碑)가 언제부터 생겨났는지는 분명하지가 않다. 그러나 지금 남아있는 유명한 비들만 보아도 이미 기원 이전에 세워진 것들이 많다.

기원전 5세기 주(周)나라 선왕(宣王) 때 세워진 것으로 알려진 중국의 석고문(石鼓文)도 그 내용은 수렵에 관한 것이었다. 우리나라에서 발견되고 있는 고비(古碑) 가운데도 삼국시대 이전의 것에는 수렵비들이 많다. 북한산, 황초령, 마운령 등의 비가 모두 신라 진흥왕(眞興王)의 순수비(巡狩碑)로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한편으로는 다른 의미의 비들도 생겨났다. 진(秦)나라 시황(始皇)은 천하를 통일하자 그 2년 뒤인 기원전 219년부터는 그 넓은 영토를 순시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영토의 끝에 이르거나 이름 높은 명산에 오르면 그의 위업을 천지신에 고하는 제사를 지내고 빗돌을 세웠다. 이제 그가 죽은 지 2천2백년이 지났지만 흔히 봉선비(封禪碑)로 알

려진 그 비들은 지금도 태산(泰山), 낭야대(琅琊臺), 지부(之罘), 갈석문(碣石門), 회계(會稽) 등 여러 곳에 남아 그때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다.

비는 그 뒤로 필요에 따라 수많은 의미를 담으며 생겨났다. 묘비(墓碑), 신도비(神道碑), 탑비(塔碑), 송덕비(頌德碑), 효자비(孝子碑), 열녀비(烈女碑), 기공비(紀功碑), 유허비(遺墟碑) 등등 여러 가지라고 할 수 있다. 제주도에도 ‘비다(碑多)의 섬’이라고 할 만큼 많은 비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묘비가 대중을 차지하고 있고 기념비로는 약간의 효자 열녀비 등을 제외한다면 목사(牧使)나 수령(守令)들의 선정비를 포함하여 거의가 송덕비들이라고 할 수 있다.

적소(謫所) 터조차 몰라 ...

제주도는 2천년의 역사와 더불어 탐라국(耽羅國)의 궁전을 비롯하여 수많은 역사 유적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그 터를 알려주는 유허비는 ‘삼성혈비(三姓穴碑)’, ‘삼사석비(三射石碑)’, ‘굴림서원묘정비기(橘林書院廟庭碑記)’, ‘향현사유허비(鄉賢祠遺墟碑)’, ‘조설대비(朝雪臺碑)’, ‘삼·일운동기념비(三·一運動紀念碑)’ 등 손꼽아 볼 수 있는 정도라고 할 것이다.

더구나 제주도는 원제국(元帝國)이 지배하던 13세기말부터 조선시대 말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유배인(流配人)들이 적거했던 유형지(流刑地)였다. 그들 가운데는 위왕(魏王) 아목가(阿木哥), 패란해대왕(孆蘭奚大王), 광해군(光海君) 등 중국이나 우리나라의 왕을 비롯한 왕족 정승 대신 문인 학자 무인 종교인 등 저명한 인물들이 포함돼 있다.

지금 그들 유배인 가운데 유허비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충암김정적려유허비(冲庵金淨謫廬遺墟碑)’, ‘우암송시열적려유허비(尤庵宋時烈謫廬遺墟碑)’, ‘동계정은유허비(桐溪鄭蘊遺墟碑)’, ‘서재임징하적려유허비(西齋任徵夏謫廬遺墟碑)’, ‘추사김정희적려유허비(秋史金正喜謫廬遺墟碑)’ 등 몇 사람에게 지나지 않는다. 그 비들도 거의 본래의 적소에서는 쫓겨나 세워진 상태이며 또 언제 어떤 수난을 겪게 될 지도 모르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그때의 적소(謫所)가 어디에 있었는지조차 알기 힘들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제주도는 이제 교통이 편리해지면서 해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다. 그들 가운데는 몇 구경만이 아니고 역사문화의 인식을 지닌 사람들도 적지 않으리라고 생각된다. 어느 한 시대를 이끌던 역사의 주인공 누가, 어느 한 시대를 대표했던 학자 누가 이곳에서 귀양살이를 했다면 한번쯤 찾아볼 만도 하다. 더구나 그 필요를 절감하는 후손 후학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비(碑)운동 일어날 때 ...

필자는 지난 1994년 6월 본란을 통하여 「유배인 유허비(遺墟碑)를 세우자」고 제의한 일이 있다. 그 무렵 나는 공감을 표시하는 몇 사람을 만나고 이런 생각이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필자는 또 최근 우연한 자리에서 이 같은 이야기가 강조되고 있음을 보았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 주변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음이 분명하다. 적어도 6백여 년의 오랜 시대에 걸쳐 유형지였던 제주도에 유배

인들의 유허비를 세우는 일은 너무나 당위성을 지닌 운동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한다.

비(碑)는 역사문화를 인식하는데 있어 어떤 기록보다도 강한 대변자가 된다고 할 수 있다. 2천년이 지난 주선왕(周宣王)이나 진시황(秦始皇)의 비가 말해주듯이 비 앞에 서면 아무리 긴 시간이라도 초월할 수 있으며 그날의 주인공과 마주서 대화할 수가 있다.

이제는 더 늦기 전에 제주도에 유허비를 세우는 운동이 일어나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여기에는 어느 한 두 사람이나 한 구 기관이 아니라 도민 모두가 공명하고 성원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